

본 자료는 2018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오슬로〉 프로그램북 파일로,
관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게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국립극단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복제, 재인용을 금하며
개인 SNS와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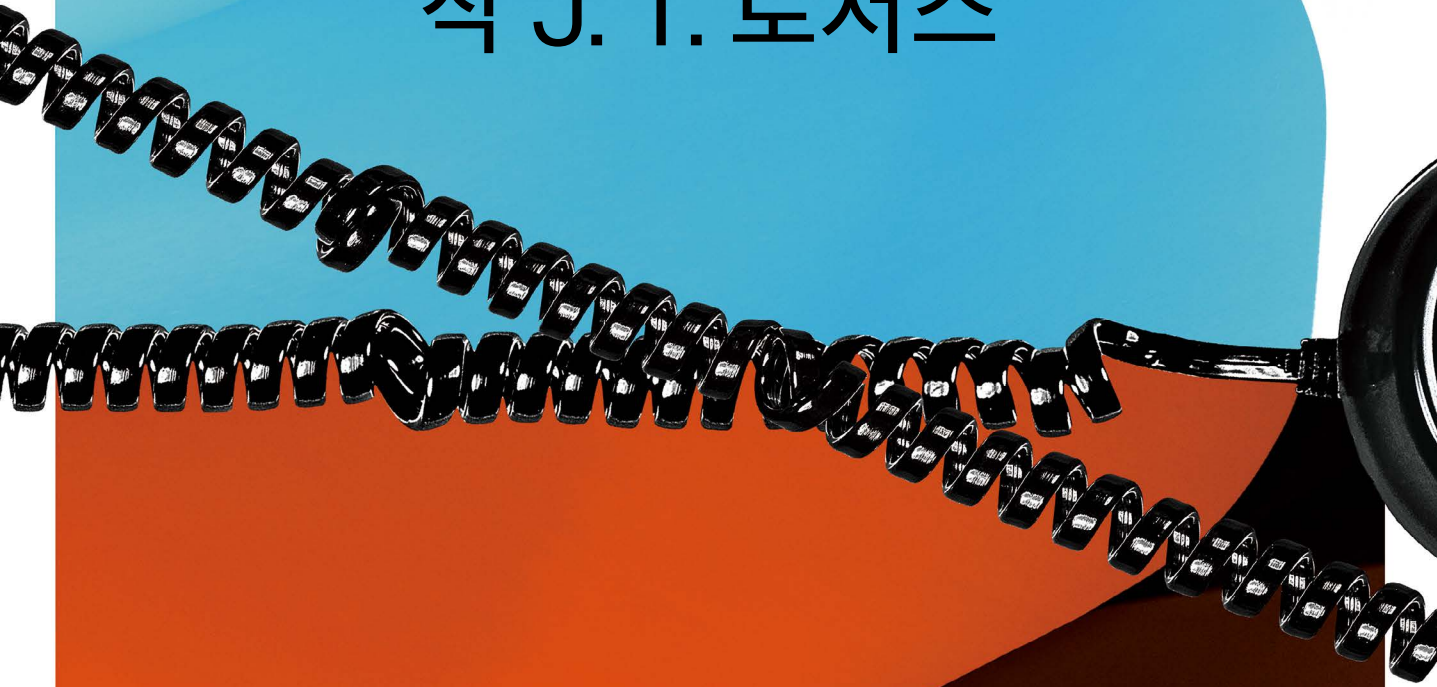
국립극단



국립극단

오슬로

작 J. T. 로저스



국립극단 명동

국립극단 - 오솔로

작 J. T. 로저스

번역 고영범

연출 이성열

Originally Produced by Lincoln Center
Theater New York City, 2016

본 공연은 2016년에 뉴욕시 링컨센터극장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작가소개 및 서면인터뷰.....	02
연출가 인터뷰..... 부희령	04
평화를 향해 가는 지난한 여정	
줄거리.....	08
출연진.....	09
인물 관계도.....	17
작품해설..... 조만수	18
오슬로의 동의어, 서울, 평양 그리고...	
작품 이해 돕기1..... 성일광	22
평화를 위한 영토 반환의 여정	
작품 이해 돕기2.....	26
아랍·팔레스타인 분쟁 및 세계주요사건 연대표	
작품 이해 돕기3.....	28
작품 속 주요 용어 해설	
무대디자인 스케치.....	30
연습 스케치.....	32
스태프.....	34
만드는 사람들.....	35



일정

2018년 10월 12일(금) ~ 11월 4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모 인터뷰에서, 작가님의 공연을 보러 온 실존인물 티에유 로드-라르센을 직접 만난 뒤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라르센과 오슬로 협정의 어떤 부분이 작가님을 매료시킨 건가요? 그리고 집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 현실의 라르센은 매력, 야망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징을 제 작품 속 허구적 인물 '라르센'에게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죠. 오슬로 협정을 이끌 어낸 비밀 채널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관계자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과 역사학자들이 이 비밀 채널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고 글을 써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 태였습니다.

창작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관객에게 정보와 배경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연극 적인 (그리고 바라건대 재미있고 캐릭터 중심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극이 완성된 후에 여러 장면과 인물을 삭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대본의 분량을 많이 줄였어 요. 이야기가 매우 풍성한긴 하지만 작품의 공연 시간을 마냥 늘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J. T. 로저스 J. T. Rogers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국 출신의 극작가이다. 연기를 전공한 후 뉴욕에서 극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오슬로 Oslo> <Blood and Gifts> <The Overwhelming> <White People> 그리고 <Madagascar> 등을 통해 오 비상, 토니상 등 주요 희곡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들은 르완다 대학살, 아프가 니스탄 사태 등 주로 세계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국 뿐 아 니라 독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주요작품

<오슬로 Oslo> <Blood and Gifts> <The Overwhelming> <White People> <Madagascar>

주요수상

2017 토니상 최우수 연극상, 드라마 데스크상 최우수 연극상, 뉴욕 드라마비평가협회 최우수 연극상, 오비상 Best New American Theatre Work 외

J. T. 로저스

오늘로 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순간에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르센과 모나의 고군분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 먼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의 명언[◆]을 살짝 바꾸어 '역사라는 활은 장대하지만 결국 평화를 향해 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이토록 진정한 적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 인물 (그리고 제 작품 속의) 라르센과 모나가 평화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그리고 나아가 개인과 세계의 변화를 엿본 이상, 어떻게 평화를 향한 투쟁을 멈출 수 있었겠어요?

◆ "도덕적 세계라는 활은 장대하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휜다."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한국 관객들이라면 이 작품을 보고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전 이후 약 65년간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공연을 올리는 소감이 어떨신가요? 한국의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국에서 제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한국 관객들은 연극을 보러오는 여느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저보다 훨씬 대단한 집단지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관객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과 마주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갈등과 돌파구로 인해, 제 작품이 현시점의 서울에 좀 더 특별한 정치적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반향이 제 글 때문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닥친 위험과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분열을 넘어 공익을 향한 합의점으로 가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작품이 현재 트럼프 시대가 겪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에서는 어떤 면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성열 現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주요작품 〈에어콘 없는 방〉 〈햄릿아비〉 〈아버지와 아들〉 〈날아다니는 돌〉 〈즐거운 복희〉 〈바냐아저씨〉 〈과부들〉 〈봄날〉 〈여행〉 〈그린벤치〉 〈키스〉 〈굿모닝? 체홉〉 〈아메의사〉 〈햄버거에 대한 명상〉 〈채권자들〉 〈디너〉 〈죽음의 집2〉

주요수상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 〈햄릿아비〉 | 2014 제7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즐거운 복희〉 | 2013 제23회 이해랑연극상 | 2012 제4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과부들〉 | 2009 제30회 서울연극제 연출상 〈봄날〉 | 2007 제9회 김상열 연극상 〈물고기의 축제〉 | 2005 제1회 올해의 예술상 연극부문 최우수작품상 〈그린 벤치〉 | 1998 제34회 한국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연출상 〈굿모닝? 체홉〉

평화를 향해 가는 지난한 여정 적으로 만나 친구로 대화하다

인터뷰 진행·정리_부희령 소설가

〈오솔로〉는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오솔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소통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지만 25년 전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오솔로〉가 무대에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지난 4월 27일 이후 몇 달 동안 이루어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같은 우호적 관계 개선의 징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솔로〉는 2016년도에 미국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된 작품입니다. 2017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런던으로 건너가 국립극장에서 공연했고, 그 다음에 웨스트엔드의 해롤드핀터 극장에서 흥행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갑니다. 국립극단에는 세 개의 극장이 있는데 작가 중심 창작극을 공연하는 백성희장민호 극장, 연출 중심의 실험 극장인 소극장 판이 있고, 관객 중심으로 공연하는 명동예술극장이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는 세계 고전, 해외 신작 그리고 우리 극단의 고정 레퍼터리들을 무대에 올립니다. 〈오솔로〉는 해마다 두 편 정도 소개하는, 동시대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해외 신작에 해당되지요. 많은 상을 받았고 우수한 작품으로 검증 되어 2017년도에 이미 원작을 번역해 둔 작품이지만, 우리 관객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 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공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게 되는 지난한 과정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과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 보았어요. 우리 관객이 보고 우리 얘기처럼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 대부분은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솔로〉는 시공간이 뒤섞여 여러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장면의 전환이 빠르기도 합니다. ‘모나’라는 인물이 소설에서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아 관객에게 새로 등장한 인물이나 상황의 추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관객에게 여러 차원으로 엮인 카오스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인가요?

하나의 무대에 여러 시공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미 연극에서 자주 시도해왔던 방식입니다. 요즘은 더 많이 시도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처럼 빠른 속도로 장면이 바뀌는 것 역시 낯설지 않습니다. 관객에게도 익숙한 설정일 것입니다. 오히려 관객과의 교감에서 더 고민을 한 부분은 25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관객에게 와 닿게 만들 것 인가였어요. 요즘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르는 역사니까요. 연극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츠하크 라빈이나 시몬 페레스, 야세르 아라파트 같은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공연하는 배우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대답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가 크게 와 닿지 않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로 오는 난민에게 갖는 관심보다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관객의 공감을 끌어낼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영상에 자막으로 띄워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관객은 대사를 듣고 따라가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워낙 양이 많고 빠르게 진행되는 대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모나'라는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거나 정리하기도 하고, 위기를 맞이하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한데, 리더십을 지닌 여성 캐릭터를 우리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슬로〉에는 세 명의 여성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나', '토릴', '마리안느'지요. '모나'는 이상주의자인 남편 티에유를 지지하지만 때로는 무모하게 대책 없이 저질러 놓는 일들을 수습하고 통제합니다. 객관적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고조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격렬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토릴'입니다.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아랍인들을 위해 사슴고기를 요리하고 적절한 순간에 외풍을 구워오기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이나 위기를 넘긴 모성으로 감싸 덮는 여성이지요. 과거 세대의 이상형인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느'는 화해를 중재하기 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를 주장하는 주화론자들과 전쟁을 방조하는 주전론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나'와 같이 현대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이 난관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맡아 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두고 쓰였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실존했던 사람들이고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을 하거나 캐릭터에 변화를 주거나 하는 시도에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해서 일관되게 풀어나가는 형식입니다. 추리물이 아니고서는 흔하지 않은 구조이지요. 서사의 흐름은 보통 여러 갈래로 진행됩니다. 큰 줄기가 있고, 잔가지들이 뻗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체홉 작품들은 서사가 복잡해서 이야기가 두 세 갈래로도 뻗어 나가요. 연극을 다 보고 나서도 큰 줄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야기가 단선의 레일 위에 올라타서 쭉 직진합니다. 세 시간 동안 동일한 주제로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

나요. 오슬로에서 열리는 비밀 회동이 일곱 차례입니다. 전쟁 영화로 생각하면 전투 장면이 일곱 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지요. 복잡하지만 한편으로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객이 따라가기에 버겁고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굴곡과 변화를 주는데 신경을 썼지요.

원작 희곡이나 미국, 영국에서 공연된 연극은 건조하고 지적인 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주된 관심사이고, 원래 그들의 언어로 쓰인 대사라 입에 잘 붙고 귀에 잘 들어 오니까 관객이 웃고 즐기는 분위기지만, 공연 자체는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객은 정서적인 작품을 좋아합니다. 러시아 작품에 대한 호응이 좋고 독일 작품을 멀리하는 이유도 지적인 것보다 정서적 호소력이 있는 것을 반기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지적인 면도 살리면서 관객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오슬로〉에는 국제관계의 협상 방식인 포괄주의 모델을 대체하려는 티에유 라르센의 점진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기반으로 삼는 이 모델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자가 논쟁 중인 이슈 하나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벌이고, 그 이슈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구축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이슈 또 하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대사에도 나오듯이,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는 사이면 평화를 도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는 내가 다니는 시장을 폭격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폭파시키는 자들과 도모해야 하는 것인데, 티에유의 모델은 먼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한 적과 적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시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맛있는 외식을 먹어요. 관계가 사적으로 느슨해지면 실수를 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튀어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평화를 얻기까지 희생과 양보,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에도 믿는 게 믿음이지요. 이 작품 속에 평화와 화해를 향한 우리 민족 공동체의 희구를 간접적으로나마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았습니다.

199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다. 미국이 주도한 평화협상은 계속 실패하고, 유혈충돌은 두 지역을 더 갈라놓는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지켜보던 노르웨이의 한 부부는 과감하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비밀 협상 채널을 만들고자 한다. 노르웨이 부부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대표자들의 회담이 극비리에 준비되고 몇 차례 협상이 진행된다. 격의 없는 분위기로 회담 관련자들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들은 결국 서로가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Synopsis

In 1992, tension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run higher than ever. As the US-led peace process ends in a series of failures, bloody clashes in the region exacerbate divisions. Having witnessed the devastation caused by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 Norwegian couple takes a daring step toward peace and establishes a secret back channel. Under their leadership, delegates from both sides hold talks in strict secrecy to negotiate peace. The informal setting allows them to get close to each other during the dialogue. It becomes evident that they all share a wish for peace.





손상규 Son Sang-kyu

티에유 로드-라르센 Terje Rød-Larsen

연극

〈여직공〉 17/15 | 공장감독 외 | 언더스탠드예비뉴 외
 〈죽음과 소녀〉 17 | 로베르도 미란다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메디아〉 17 | 사자 | 명동예술극장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16 | 코슬로프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가까스로 우리〉 16 | 엔트러버스 | 소극장 판
 〈겨울이야기〉 16 | 레온테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폭스파인더〉 15 | 사무엘 코베이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한 개의 사람〉 15 | 쉰푸 외 | 남산아트센터
 〈새빨간 얼굴〉 13 | 김침지 외 | 산울림소극장
 〈개는 맹수다〉 12 | 작가 외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외

수상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전미도 Jeon Mi-do

모나 율 Mona Juul

연극

〈비 BEA〉 16 | 비 | 프로젝트박스 시아
 〈흑흑흑 히히히〉 16 | 연백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메피스토〉 14 | 메피스토 | 예술의전당 C토월극장
 〈14인 체홉〉 13 | 나팔리아 | 프로젝트박스 시아
 〈로미오와 줄리엣〉 12 | 줄리엣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벚꽃동산〉 12 | 아나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갈매기〉 11 | 니나 | 서강대학교 메리홀
 〈디 오써〉 11 | 미도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호야〉 10 | 귀인 어씨 | 남산예술센터
 〈신의 아그네스〉 08 | 아그네스 | 설치극장 정미소 외

수상

2018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
 2017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여자인기상
 2017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
 2015 제9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신인연기상



민병욱 Min Byung-wook

요한 요르겐 홀스트 Johan Jørgen Holst

연극

〈최서림, 아화순례기행전〉 18 | 노연명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럭키슈퍼〉 17 | 슈퍼주인 | 아름다운극장
 〈에어콘 없는 방〉 17 | 하와이 | 남산예술센터
 〈벚꽃동산〉 17 | 뷔쉬치크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혈우〉 17 | 최항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16 | 마정식교도관 | 열린극장
 〈오셀로〉 16 | 로더리고 |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햄릿아비〉 16 | 선왕 외 | SH아트홀
 〈아버지와 아들〉 15 | 브로코피치 | 명동예술극장
 〈소불자르고주인이오기전에도망가선생〉 15 | 수사관A | 남산예술센터
 외

수상

2007 전국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최우수연기상



김수아 Kim Su-ah

마리안느 하이베르그, 미국인 외교관
 Marianne Heiberg & American Diplomat

연극

〈페스트〉 18 | 리유의 아내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일본인 관광객/인부 | 명동예술극장
 〈말들의 집〉 17 | 경찰 | 백성희장민호극장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17 | 희수 |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갈매기〉 17 | 니나 | 오페아뜨르
 〈메디아〉 17 | 코러스 | 명동예술극장
 〈우리별〉 17 | 엄마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함익〉 16 | 나영옥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헨리4세 왕자와 폴스타프〉 16 | 퀴클리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바나야저씨〉 16 | 마리아 | 아름다운극장
 외



김정호 Kim Jeong-ho

아흐메드 쿠리에 Ahmed Qurie

연극

〈가지〉 18 | 삼촌 | 백성희장민호극장
 〈나는 살인자입니다〉 17 | 남편/바의 마스터 외 | 소극장 판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17 | 프랭크 | 대학로 나온씨어터
 〈해방의 서울〉 17 | 사장 | 30스튜디오
 〈땃글부대〉 17 | 회장 | 연우소극장
 〈가족〉 17 | 박기철(아버지) | 명동예술극장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7 | 조순 | 명동예술극장
 〈실수연발〉 16 | 드로미오 | 명동예술극장
 〈로베르토 주코〉 16 | 소녀의 아버지 외 | 명동예술극장
 〈국물 있습니다〉 16 | 사장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수상

2018 제 54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6 서울연극협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05 제 41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임준식 Im Jun-sik

하산 아스푸르 Hassan Asfour

연극

〈페스트〉 18 | 젊은 베르나르 리유 | 명동예술극장
 〈성〉 18 | 슈바르처/뮌르겔 외 | 명동예술극장
 〈햄릿_아바따〉 16-18 | 햄릿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외
 〈사거리〉 17 | 영화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모범생들〉 17/13 | 안종태 | 대학로 자유극장 외
 〈세상친구〉 17 | 만석 | 드림씨어터 외
 〈일리아드〉 16/12 | 아가멤논 | CJ아지트 대학로 외
 〈연옥〉 16 | 남자 | 예그린씨어터
 〈경성의 테러리스트〉 14 | 김상옥 | 대학로예술극장 3관 외
 〈히스토리 보이즈〉 13-14 | 렛지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외



정승길 Chung Seung-gil

요엘 싱어 Joel Singer

연극

〈선을 넘는 자들〉 18 | 김군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16/14 | 동하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빛의 제국〉 16 | 이필 | 명동예술극장
 〈푸르른 날에〉 12-15 | 오진호 | 남산예술센터
 〈위대한 유산〉 14 | 조 | 명동예술극장
 〈공장〉 14 | 윤수 | 이해랑예술극장
 〈목란언니〉 13 | 허태산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에이미〉 13 | 도미닉 | 명동예술극장
 〈벚꽃동산〉 12 | 트로피모프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전명출평전〉 12 | 전명출 | 남산예술센터
 외

수상

2012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남자연기상



최지훈 Choi Ji-hoon

유리 사비르 Uri Savir

연극

〈성〉 18 | 한스 외 | 명동예술극장
 〈토일릿 피플〉 17 | 한주영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싸지르는 것들〉 16 | 비더만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뷰티풀 선데이〉 15 | 오정진 | 한양레퍼토리 소극장
 〈만선〉 13 | 연철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숲 속의 잠자는 옥희〉 12 | 김기자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황구도〉 11 | 거칠이 | 대학로문화공간 필링2관
 〈돈주양〉 11 | 동 알롱즈 | 명동예술극장
 〈당신의 잠〉 10 | 이한수 | 남산예술센터
 〈코리아, 환타지〉 05 | 김대충 | 연주소극장
 외

수상

2010 제19회 신춘문예 연기상
 2008 제8회 2인극 페스티벌 연기상
 1998 제11회 박동화연극상 신인상
 1997 제13회 전복연극제 신인연기상



정원조 Jeong Won-jo

야이르 허시펠트 Yair Hirschfeld

연극

〈사물함〉 18 | 재우 | 소극장 판
 〈더 헬멧〉 18 | 헬멧A | 아트원씨어터 3관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재엽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글로리아〉 17 | 로린 | 아트원씨어터 3관
 〈생각은 자유〉 17 | 재엽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베헤모스〉 17 | 오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고래헛웃〉 16 | 햄릿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잔치〉 16 | 진호 | 남산예술센터
 〈엘리펀트송〉 15-16 | 그린버그 | 수현재씨어터 외
 〈필로우맨〉 15 | 카투리안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외



이호철 Lee Ho-cheol

론 펀닥 외 Ron Pundak, etc

연극

〈얼굴도둑〉 18 | 남자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중국인관광객/인부 | 명동예술극장
 〈카프카의 소송〉 17/15 | 요제프K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관속에 갇힌 6인의 이야기〉 17 | 김영수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거인이 걸어오고〉 17 | 거인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쿨레방다리의 소극〉 16 | 김대식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휴먼코메디〉 15/13 | 아들 외 | 정보소극장
 〈크리스토퍼 논란 클럽〉 14 | 하비 덴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보이책〉 13 | 의사 | 명동예술극장 외
 〈죄와벌〉 12 | 자요토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창극

〈미녀와 야수〉 17 | 양상블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강진휘 Kang Jin-hwi

얀 에겔란드, 시몬 페레스 Jan Egeland & Shimon Peres

연극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장 | 예술공간 서울
 〈메밀꽃 필 무렵〉 18 | 허생원 |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12인의 성난 사람들〉 17/16 | 7번배심원 |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햄릿_아바따〉 17 | 클로디어스, 광대1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이영녀〉 15 | 유서방 | 백성희장민호극장
 〈줄리어스 시저〉 14 | 카스카 외 | 명동예술극장
 〈데모크라시〉 14 | 헬무트 슈미트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봄날〉 12 | 삼남 | 명동예술극장 외
 〈빨간시〉 11 | 삼촌/저승사자 | 혜화동1번지
 〈임차인〉 08 | 환희 | 정보소극장
 외





유수미 You Soo-mi

토릴 그란달, 스웨덴인 객실관리인
Toril Grandal & Swedish Hostess

연극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 13 | 생모 | 백성희장민호극장
〈돈키호테〉 10-11 | 마리토네 | 명동예술극장
〈벚꽃동산〉 07 | 라네프스카야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세자매〉 04 | 올가 | 뉴욕체홉페스티벌 외
〈홍가에 별들여라〉 04-05 | 변소각시 | LG아트센터 외
〈햄릿〉 97-98 | 무덤지기 | 문예회관 대극장 외
〈오구-죽음의 형식〉 97 | 저승사자1 | 정동극장
〈하녀들〉 95 | 플레르 | 혜화동 1번지
〈하재비놀이〉 94 | 여교수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킹 리어〉 93 | 리이건 | 문예회관 대극장
외

영화

〈검은 사제들〉 〈뜨거운 것이 좋아〉



김정환 Kim Jung-hwan

요시 베일린, 핀 그란달 Yossi Beilin & Finn Grandal

연극

〈성〉 18 | 게어슈테커 외 | 명동예술극장
〈제향날〉 17 | 다역 | 백성희장민호극장
〈1945〉 17 | 최주임 | 명동예술극장
〈가족〉 17 | 임봉우 | 명동예술극장
〈실수연발〉 16 | 드로미오 | 명동예술극장
〈한국인의 초상〉 16 | 다역 | 소극장 판
〈토막〉 15 | 명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이영녀〉 15 | 나레이터/그 남자 | 백성희장민호극장
〈줄리어스 시저〉 14 | 데시어스 | 명동예술극장
〈남사당의 하늘〉 08 | 장구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수상

2006 제14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무용부문 대상
2006 제42회 전국 신인무용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 차석
2005 제23회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 은상



강해진 Kang Hae-jin

트롤 외 Troll, etc

연극

〈두드려라 맥베스〉 18 | 레이디 맥베스 | 대학교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말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 옥진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17 | 연화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유리디스〉 17 | 유리디스 | 여행자극장
 〈재생불량소년〉 16 | 경우 | CJ 아지트 대학로
 〈백묵원 유전유죄 무전무죄〉 15-16 | 그루세 | 성수아트홀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16 | 꽃 | 춘천 봄내극장
 〈졸업작품〉 15 | 보람 | 대학로 브띠첼 시어터
 〈해경궁 홍씨〉 13-14 | 화완옹주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조남용 Cho Nam-yung

토르 외 Thor, etc

연극

〈페스트〉 18 | 장교 외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한국인 관광객/인부 | 명동예술극장
 〈히키크고모리〉 17 | 태성 | 대학로 달빛극장
 〈벨마와 프랭키〉 17 | 프랭키 | 대학로 스카이스어터 2관
 〈벚꽃동산〉 16 | 프로피오프 | 대학로 달빛극장
 〈RISK〉 16 | 아르투로 | 청담 유씨어터
 〈The Red〉 15 | 근후 | 스타시티 TM
 〈더 러버 & 리뷰스케치〉 15 | 월석 외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My Girl〉 14 | 제이콥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필로우맨〉 10 | 카투리안 | 동숭무대 소극장
 외

목소리 특별출연

정만식 Jung Man-sik

이츠하크 라빈 Yitzhak Rabin

이스라엘

이츠하크 라빈
(총리)

시몬 페레스
(외무부 장관)

요시 베일린
(외무부 차관)

요엘 싱어
(외무부 법률자문)
(미국법률회사 파트너)

유리 사비르
(외무부 국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아흐메드 쿠리에
(재무장관)

하산 아스푸르
(외교보좌역)

인물 관계도

하이파 대학

아이르 허시펠트,
론 푼닥
(경제학과 교수)

보레가드 이스테이트 (비밀회담 장소)

토릴 그란달, 핀 그란달
(관리인 부부)

노르웨이

요한 요르겐 홀스트
(외무부 장관)

안 에겔란드
(외무부 차관)

모나 울
(외무부 직원)

경찰정보국

트롤, 토르
(요원)

파포(FAFO) 응용사회과학연구소 (싱크탱크)

티에유 로드-라르센
(소장)

마리안느 하이베르그
(연구원)

오슬로의 동의어, 서울, 평양 그리고...

조만수 <오슬로> 드라마투르그·충북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처음 이 작품의 참여를 제안 받고 읽었을 때,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그리 썩 마음에 다가오는 작품은 아니었다. 93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평화회담의 뒷이야기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먼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알 카에다, IS 같은 이름이 중동문제를 다루는 외신 속에 자주 등장하면서 PLO는 이제 우리 기억에서 가물거리는 먼 과거의 이름이 되었다. 더욱이 대한민국만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갈등에 둔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 분단의 침예한 갈등 속에서 점차 고조되는 전쟁의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중동문제는 TV뉴스 속 먼나라 이야기 그 이상은 아니었다. 2017년 토니상 작품상 수상작이며 같은 해 미국의 모든 연극상을 휩쓴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을 우리 관객에게 소개하고, 동감시켜야 할 필요성과 필연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희곡이라는 장르는 매우 흥미로운 장르이다. 북미간의 갈등이 침예하게 끓어오르더니 일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봄을 지나면서 <오슬로>라는 희곡은 우리가 한 글자도 변형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공연되어야 할 필요성과 필연성을 스스로 주장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울과 평양이, 판문점과 싱가포르가, 예루살렘과 가자, 그리고 오슬로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되기 시작했다.

<오슬로>는 작가 J. T. 로저스의 전작들처럼 정치적 소재를 다룬다. <저항불가(The Overwhelming)> (2004)에서는 르완다 인종학살을 그리고 <피와 선물(Blood and Gifts)> (2010)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다루었던 그가 <오슬로>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소재에 접근하는 작가의 방식은 특이하다. 그는 서사극적 형식과 브로드웨이 웰메이드 연극의 형식을 결합한다. 일종의 살롱연극처럼 실제 거창한 사건 없이 거실 공간 속에서 끝없는 말들로 이루어지는 연극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중요한 변화를 다루는 연극을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두 요소의 결합을 효율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이 이질성의 결합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고,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눈물지으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연극을 이루는 이야기는 계속 곱들거리며, 흥미를 끌면서도, 이 옹광로 같은 무대를 차갑게 응시하는 비판적 의식을 유지하는 형



식의 결합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하지만 ‘모순’이라는 단어는 길항하는 두 항을 가정한다는 의미에서 연극적 행위 즉 ‘갈등’의 동의어이며, 연극이라는 장르의 핵심이기도 하다.

작가의 언어 속에서 이 모순된 결합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접촉을 공식조약으로 구체화하는 일, 그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모나 율이 말하듯이,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이고, 이 작은 나라사람들은 옛 애인이 직장 상사이고, 장관의 부인이 라르센의 부하직원이고, 라르센의 부인은 외무부 장관의 부하인 관계,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비공식접촉을 위한 암호가 ‘아들’, ‘아버지’, ‘큰아버지’라는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사적 관계의 용어들이며, 쿠리에와 사비르가 ‘마야’라는 같은 이름을 지닌 딸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 또한 개인적 관계가 공적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작가의 믿음을 보여주는 작은 설정들이다.

모든 것은 한 명의 돈키호테,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공주 둘씨네아로부터 시작되었다. 극중 인물 홀스트가 말하듯 외교관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지만 티에유 로드-라르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향해 돈키호테처럼 돌진한다. 티에유 로드-라르센과 모나 율 커플은 오슬로협정을 위한 막후교섭을 가능하게 한 실존인물이다. 그들은 각각 단지 한 명의 개인이었다. 이 부부는 일반적인 상식로서는 허황되어 보이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 노르웨이의 싱크탱크 파포연구소(FAFO Institute) 소장인 사회학자 티에유 로드-라르센과 외교관인 모나 율은 누구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재자를 자임하고, 양자 간의 비밀 회담을 주선한다. 그들은 자국 외무부를 설득하고, 양자를 설득하고, 심지어 미국을 제외시켜가면서 양자를 직접 접촉토록 한다. 협상자들의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에는 공식적인 협상안을 수립하는 방식이 티에유 로드-라르센이 실천하고자 하는 협상 이론이다.

티에유와 모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의 협상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폭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의 연극 무대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배역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연출가인 것이다. J. T. 로저스의 〈오슬로〉는 그 안에서 티에유 로드-라르센이 연출하고, 모나 율이 해설을 맞는 극중극을 품고 있는 것이다. 연출가나 해설자는 무대 위 행위자가 아니므로, 멀리서 객관적 시각을 지니고 관찰하고 분석한다. 심지어 티에유는 주선만 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모나에게 맹세까지 한다. 그들이 조성과 관찰하는 이 ‘오슬로’에서의 연극은 매번 새로운 위기가 발발하며, 인물 간 갈등은 새로운 인물이 추가될 때마다 더 커져간다. 허시펠트, 사비르, 싱어 등 이스라엘 측의 협상당사자가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개성들을 지닌 인물들은 각자 다른 갈등을 가져오고, 결국 이들은 그 갈등을 폭발시키고 다시 넘어선다.

대립하는 두 항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이 경계를 <오슬로>에서는 '레드 라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대립하는 두 항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때로 이 완충장치 자체가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완충장치를 환기한다면 말이다. 작가는 인물들이 이 레드 라인을 넘어서도록 한다. 쿠리에는 론 푼닥이 그 레드 라인을 넘어서었다. 사비르는 허시펠트가 그 레드 라인을 넘어서었다. 티에유는 모나가 그 레드 라



인을 넘어서었다. 선을 지키기를 그토록 당부했던 모나 또한 허시펠트에 따르면 “이젠 이 일의 한 부분”이다.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 더 이상 설정자, 관찰자, 연출가가 아니다. 이제는 무대 위의 행위자이다. 바로 그 때문에 모나는 독일인 관광객들 앞에서 토릴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며, 티에유는 자신을 자극하는 사비르를 상대하여 라빈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다.

연극은 항상 사라진다. 1993년 오슬로회담을 막후에서 준비하고 성사시킨 인물들은 이제 역사는 무대의 막 너머로 사라졌다. <오슬로>의 엔딩 장면은 이 사라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역사적인 오슬로회담에 의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의 평화의 초석을 놓았지만, 그 평화는 지속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의 폭력은 지금 차라리 더 심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시도는 과연 헛된 것일까? 그리고 동시에 이 헛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연극 또한 헛된 놀이에 불과한 것일까? 그리고 <오슬로>에서처럼, 돈키호테처럼 불가능한 평화를 논의하는 모든 논의는 결국 헛된 것일까?

라르센 역을 맡은 배우 손상규가 객석을 향해 선다. 이 극장 안에서 그의 공적인 이름은 티에유 로드-라르센이지만, 본래의 개인의 이름은 손상규이다. 그가 말한다. “친구들...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보세요! 우리가 피와 공포와 증오를 모두 통과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라면,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기 지평선. 그 가능성. 보여요?”

무대와 객석을 나누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 티에유-손상규가 우리를 향해 말할 때, 이제 관객이 레드 라인을 넘어서서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 ‘오슬로’와 동의어인 ‘서울’에서, 저 앞에 피와 공포와 증오를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평화를 위한 영토 반환의 여정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한국 이스라엘 학회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1882년부터 시작된 10여 차례의 알리야(유대인 이민)를 거치면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팔레스타인 노동자와 경쟁하면서 갈등이 싹텄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주에게 웃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팔레스타인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1917년 영국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한 뵈프우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이 발표되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무력충돌은 악화됐다.

1936년 아랍인들은 영국의 위임통치와 친유대인 정책에 반대해 6개월에 걸친 대규모 파업과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유대인 정착민과 충돌했다. 국제연합(UN)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국가로 각각 나누는 분할안을 1947년 제안했다. 즉각 수용한 유대인과 달리 너무 많은 영토를 유대인에게 할당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측은 분할안을 거부하면서 양측 민병대 간의 무력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천명하자 그 다음날 주변 아랍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향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둘러싸고 반복하게 된다. 10개월간의 전쟁이 끝나고 1949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는 로도스 섬에서 열린 휴전협정에서 새로운 국경선 즉 녹색선(green line)을 확정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은 6일 만에 종결되면서 '6일 전쟁'으로 불리지만 더 중요한 함의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집트가 티란 해협을 봉쇄하고 시나이 반도 주둔 유엔군을 철수시키자 이스라엘은 전쟁이유(casus belli)로 간주해 이스라엘 단독 선제공격으로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전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골란 고원을 점령했으며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한 유엔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안 242조와 338조를 거부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씨앗을 스스로 안게 됐다.

6일 전쟁의 또 다른 결과는 1950년대부터 가말 압둘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시리아와

의 통합아랍국가(United Arab Republic, 1958-1961)건설로 결실을 맺은 범아랍주의의 폐기이다. 범아랍주의를 대체할 대안 이데올로기로 중동정치 질서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이슬람 주의(Islamism 또는 political Islam) 운동이 등장했으며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창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4차 중동전쟁의 씨앗은 이스라엘의 오만과 오판이었다. 이스라엘은 카리스마를 지닌 나세르와는 거리가 먼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담력이 없다고 오판하고 그의 평화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1973년 사다트는 협상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전쟁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유대인의 속죄일(욥 키푸르)에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고전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전세를 막바지에 역전시켜 시나이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전후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셔틀 외교는 이집트-이스라엘을 평화협상에 큰 기여를 했다. 키신저 장관은 1974년 초 시나이 협정 I(Sinai Agreement I)과 1975년 시나이 협정 II를 중재해 시나이 반도 반환을 성사시켜 이집트의 신뢰를 얻었다. 시나이 협정으로 자신감을 얻은 사다트는 1977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의 기틀을 닦았다.

1978년 9월 5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베긴과 사다트 두 정상을 메릴랜드주 소재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트로 초대해 평화협상을 중재했다. 12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두 정상은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완전 철수를 포함해 양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키로 9월 17일 합의했다. 아랍권 여론을 인식한 사다트는 향루 마드리드 평화회담과 오슬로 협정의 근거가 되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1979년 3월 26일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아랍권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집트를 아랍연맹에서 퇴출시켰고 이집트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됐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팔레스타인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캠프 데이비트 협정을 거부했다.

1991년 3월 6일 조지 H.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종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미 의회에서 선언하고 중동평화협상 추진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8개월 간의 셔틀외교 끝에 1991년 10월 마드리드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회담에는 부시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외에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와 레바논 대표단뿐만 아니라 요르단-팔레스타인 연합 대표단이 참석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했지만 이츠하크 샤미르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고수했다.

중동평화협상을 꺼려온 이스라엘이 1991년 마드리드 협상과 1993년 오슬로 협상에 임하게 된 배경은 1987년 시작된 팔레스타인 인타파다(무장봉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무장봉기는 이스라엘 사회에도 큰 충격이었지만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반면,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지지한 이후 외교적 입지가 좁아졌고 걸프 국가의 경제 지원도 끊어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연합대표 형식으로 참가한 마드리드 회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은 직접협상이 어려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이런 약점을 극복한 오슬로 협상은 1992년 12월에서 1993년 12월 최종 승인까지 약 1년간 미국을 배제하고 양측이 오슬로와 런던을 오가며 비공개로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1992년 4월 노르웨이 연구소 FAFO 소장이던 테르예 로드-라르센이 이스라엘 정치인 요시 베일린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 오슬로 협상의 시초가 되었다. 9월 노르웨이 외무차관 안 에겔랜드가 텔아비브에서 외무부 차관이 된 베일린에게 다시 중재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해 12월에서 1993년 4월까지 베일린 차관이 지명한 비공식 협상가 아이르 허시펠트 하이파 대학 교수와 론 푼닥 교수는 PLO 재무장관 아흐마드 쿠레이(아부 알라)와 14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다. 쿠레이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의 협상을 요청했다. 베일린 차관은 우리 사비르 이스라엘 외무부 국장을 비밀리에 오슬로로 급파해 허시펠트를 대신해 쿠레이와 8월까지 8차례 회담을 가졌다.

협상 말미 시몬 페레스 외무부 장관은 1993년 8월 오슬로를 비밀리에 방문해 쿠레이와 회담을 갖고 사비르와 쿠레이의 서명을 참관했다. 한달 후 9월 PLO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면서 협정 조인식을 위한 형식을 갖추었다. 동월 13일 백악관에서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은 오슬로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오슬로 협정 I 은 PLO와 이스라엘 정부를 상호 인정하는 서명과 5년 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창설을 정하는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DOP)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내에 2단계를 거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가자지구와 예리코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창설한 이후 선거를 통해 자치의회를 선출하고 나머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최종 지위문제 즉 최종 국경획정, 예루살렘 지위, 팔레스타인 난민문제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협상은 3년 후에 시작해 2년 내 즉 오슬로 협정의 종결 시한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합의 이행 첫 단계로 1994년 5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예리코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겼다.

1995년 9월 합의된 오슬로 협정 II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철수와 상호 치안 협의를 담고 있다. 향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돌려받을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A, B, C 3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계획이 포함됐다. A지역은 전체 반환 영토의 18%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와 치안 모두 담당하는 지역이다. B지역은 21%로 팔레스타인이 통치하지만 치안은 이스라엘과 공유한다. C지역은 이스라엘이 통치와 치안 모두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61%이다. 오슬로 협정의 가장 큰 위기는 11월 4일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 이갈 아미르의 총탄에 무명을 달리하면서 갑자기 찾아온다. 총리직을 이어받은 페레스는 약속대로 12월 6개 주요 팔레스타인 도시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아라파트 의장에게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statehood)와 자결권 획득으로 가는 임시 과정일 뿐만 아니라 PLO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대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얻은 통로였다.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을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위한 준비가 됐는지 시험하는 과정과 초기단계로 인식했지만 협정은 오히려 1994년 요르단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베일린은 오슬로 협정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양측의 극단주의 세력의 방해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아라파트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테러행위를 막지 못하자 이스라엘 여론은 평화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측의 의지를 믿지 않게 됐다. 라빈총리를 나치에 비유하고 아라파트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를 팔았다며 라빈과 오슬로를 악마화한 이스라엘 우파는 아미르와 같은 극우파 급진 유대교인 청년의 라빈 암살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오슬로 협정 이행을 위한 수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97년 1월 오슬로 협정을 이행하라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브론 협정에 서명했다. 주 내용은 헤브론의 80%에 해당하는 H-1지역은 팔레스타인 통치하에(A지역)두고 유대인이 거주하는 20% 정도의 H-2지역(B지역)에 이스라엘 군을 주둔시키는 것이었다. 그 해 3월부터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건설되고 7월과 9월에 하마스가 연쇄 폭탄테러를 감행한 이후 추가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0월 23일 미국의 매릴랜드주 와이리버에서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정치범 석방 등을 포함한 와이리버 의정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일부가 이행됐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리쿠드당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나머지 사안의 이행이 지연되고 1999년 5월 결국 조기총선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합의 이행은 멀어졌다.

1999년 총선에서 에후드 바라크가 승리해 새로운 총리가 되자 임기 말기의 클린턴은 중동평화협상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 클린턴의 초대로 바라크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은 캠프 데이빗에서 2주 동안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캠프 데이빗 II 협상은 결국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05년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이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약속한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지만 2년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차지하게 된다. 이스라엘 여론은 요르단강 서안 철수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해 됐다.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우경화에 따른 무감각으로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오슬로 협정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모든 평화협상의 이정표가 될 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평화를 위한 영토반환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됐을 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아랍·팔레스타인 분쟁 연대표

1890

1897

제1차
시오니스트회의
'시온주의자 기구'
창설

1915

맥마흔 선언
McMahon Declaration

1917.11.

벨푸어 선언
Balfour Declaration

1947.11.

유엔 결의 181호

1948.5.14.

이스라엘
건국 선언

1948.5.

제1차 중동전쟁
발발

1956.10.

제2차 중동전쟁
발발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00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

1905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이론
발표

1911

중국 신해혁명
중화민국 수립

1914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7

러시아혁명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20

국제연맹 창설

1929

대공황 시작

1936

스페인내전 발발

1939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1

일본의 진주만 기습

1945

8.15 해방
유엔 발족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50

6.25전쟁 발발

1957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세계주요사건

1967.6.

6일 전쟁
(제3차 중동전쟁)
발발

1969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선출

1972

아랍게릴라 '검은
9월단'
원헬올림픽 테러

1979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체결

1982

레바논 전쟁 발발

1987

제1차 인티파다

1993.9.
오슬로 협정
체결

1996.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2000

제2차 인티파다

2002

유엔 안보리 결의
1397호

2003

미·이·팔
중동평화 로드맵
서명

2005

이스라엘
가자지구 철수

2006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총선 승리 후
가자지구 장악

2008

가자 전쟁

2009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취임

2012

가자지구 무력충돌
발생

2017.12.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960

베트남
민족해방전쟁
(베트콩) 결성

1961

유리 가가린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 성공,
동독 베를린장벽
설치

1966

중국문화대혁명

1968

마틴 루터 킹 목사
피살,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임명

1971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

1973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철수
(파리 평화협정)

1980

이란·이라크전
발발

1984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 피살

1986

소련 체르노빌
원전 화재

1987

(한국)6월 민주항쟁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중국 천안문 사태

1990

동·서독 통일
걸프전 발발

1991

소련 소멸

1993

유럽연합(EU) 출범

1997

구글 탄생

1998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2001

9.11 테러 발생

2003

미·영 연합군
이라크 침공

2010

튀니지 혁명

2011

이집트 혁명
시리아 내전 발발

2016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 결정

2017.1.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취임

작품 속 주요 용어 해설

건설적 모호성 Constructive Ambiguity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어로, 한 사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해가 극심하게 다를 때, 용어나 표현에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모사드 Mossad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의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1951년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시오니스트 Zionist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이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한다. 시오니즘이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그들 조상의 땅인 예레츠 이스라엘(팔레스타인)로 돌아가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사상운동의 총칭이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방어행동이기도 하다.

싱크탱크 Think Tank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 싱크탱크는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산하의 싱크탱크, 개인이나 기업체에 의한 싱크탱크, 그리고 일반시민이나 독자에게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등이 있다.

오슬로 협정 Oslo Accords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아라파트 의장이 협의 한 합의.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PLO를 합법적인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하고, PLO도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인정하여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터폴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 범죄 해결과 기술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국경을 넘어 경찰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범죄를 막고 대처하는 임무를 가진 조직과 당국을 지원한다.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경찰업무를 협조하는 게 목적이다.

인티파다 Intifada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이스라엘 저항운동. 인티파다는 봉기·반란·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서만 살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여 일으킨 봉기를 말한다.

하마스 Hamas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무장단체. 중동 평화 교섭은 물론 모든 정치적 협상에 반대하고, 협상에 적극적인 PLO 지도자에 대한 공격 등 각종 테러에 관여해 왔다.

헤즈볼라 Hezbollah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세력이자 정당조직으로, 중동 지역 최대의 테러조직이다. 아랍어로 '신(神)의 당(黨)'을 뜻하며 이슬람 지하드라고도 불린다.

헨리 키신저 Henry Alfred Kissinger (1923~)

독일 출신의 미국의 정치가이자 정치학자. 1969년 R.M. 닉슨 행정부 발족과 함께 대통령보좌관 겸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국무부의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무시하고, 이른바 '키신저 외교'를 전개하였다. 1971년 7월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중국과 외교의 길을 열었고, 이어서 국무장관에 취임, 1972년 중동평화조정에 힘썼으며, 1973년 1월 북베트남과 접촉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그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AFP Agence France-Presse

프랑스 최대 통신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사.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퐁토플 Puntoffle

이디시어로 '슬리퍼'라는 뜻. 공연에서는 '난 혼자야'라고 허시펠트가 해설을 대신하는데, 이전 술자리에서 쿠리에가 '난 혼자야'라는 말을 되풀이한 것을 떠올리며 허시펠트가 농담을 섞어 퐁토플의 뜻풀이를 한 것이다.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 미국 중앙정보국이라고도 한다. 외국 정부, 기업, 사이버 공간 등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에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다.

KGB 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i

소련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통제하던 비밀경찰 및 첩보조직.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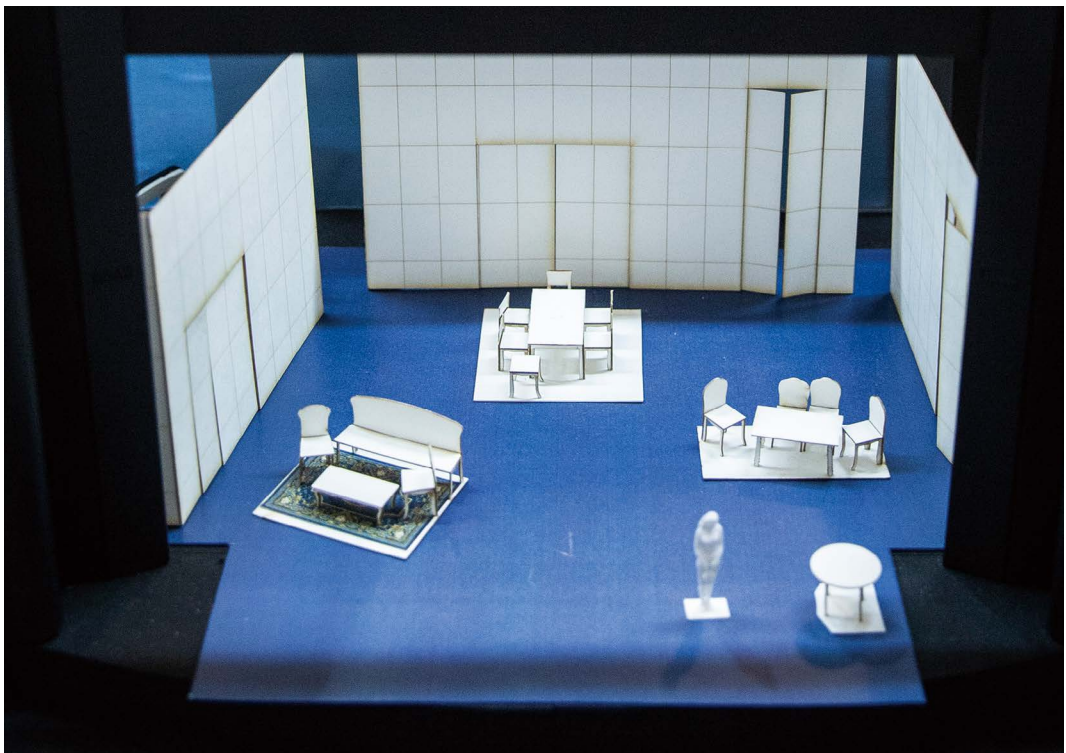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1964년 결성된 비밀저항조직.

이스라엘 건국과 1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밀지하운동조직을 결성해 게릴라전 등으로 이스라엘에 맞섰다. 그러나 군사력의 열세로 반(反)이스라엘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여러 조직의 지도부가 1964년 아랍연맹의 지원 아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했다.

PLO 초대의장 아마드 슈케이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군사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런 이유로 PLO 안에 아랍 해방군을 설립했으나, 3차 중동전쟁 패배 후 게릴라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PLO 안에서 점점 커져 슈케이리는 PLO 의장을 사임한다. 이후 PLO 안에서 최대 정치 조직이었던 파타(Fatah,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의 대표 야세르 아라파트가 PLO의장으로 취임한다.

가벼움, 신속함, 연극적 놀라움

이태섭 무대미술가





볼 꺼진 무대 공간은 유한할 수 있지만, 조명이 켜지고 배우가 등장하면 작은 거실에서부터 거대한 도시로, 숲으로, 때에 따라서는 무한의 우주가 되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매우 쉬운 테크닉이겠지만, 극장예술은 무대에서 관객의 상상력과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하는 독특한 기술이다.

연극 <오슬로>는 실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으로서 60여 개의 장면이 영화처럼 전개된다. 작가는 희곡의 서두에서 사실적 무대디자인을 피하고 가벼움, 신속함, 그리고 연극적 놀라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는 매우 사실적인 가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신속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복잡한 무대장면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무대는 삼면의 벽체로 구성되어 있다. 벽은 닫혀 있거나 열려 있으며, 전진하고 후퇴하면서 공간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리면 가구들이 팔레트에 실려 나오고 들어가면서 노르웨이의 고급아파트에서부터 고성외곽의 화려한 거실, 그리고 외교부 사무실까지 장면이 이동하게 된다. 장면의 이동은 이 작품을 현대적인 템포로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겹쳐지기도 하면서 배우들의 연기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3개의 벽면에 투사된 영상은 직접적으로 공간과 시간,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작용한다.

무대를 가로막고 있는 3개 벽체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에 있는 일명 통곡의 벽(Wailing Wall)로부터 연상되어져 발전시킨 것으로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들의 갈등과 화해의 구조는 마치 마음속의 벽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스태프

프로필

연출 —이성열 Lee Seong-yeol

프로필_04페이지

번역 —고영범 Koh Young B.

[연극]

작 〈에어콘 없는 방〉〈방문〉〈이인실〉〈태수는 왜?〉

번역 〈예술하는 습관〉

[영화]

대본 및 연출 〈납시гада〉

독일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선정작

[번역서]

〈불안〉_가쎄, 2018

〈레이먼드 카버 - 어느 작가의 생〉_강, 2012

〈Story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_민음인, 2002

드라마투르기 —조만수 Cho Man-su

연극평론가, 충북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남산예술센터 극장드라마티그 2012-2016

연극 〈에어콘 없는 방〉〈1945〉〈오늘 손님 오신다〉〈878미터의 봄〉
〈전명출평전〉〈동주왕〉〈나는야 연기왕〉〈사이코패스〉〈치정〉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햇빛사위〉〈한도열차〉〈미국아버지〉
〈불역패재〉〈단테의 신곡〉〈투명인간〉 외

무대 —이태섭 Lee Tae-sup

연극 〈1984〉〈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실수연발〉〈갈매기〉〈혈맥〉
〈하나코〉〈아버지와 아들〉〈문제적 인간 연산〉〈리어왕〉〈이영
녀〉〈리차드 2세〉〈장화홍련〉〈아워타운〉 외

수상 2005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고양이 늪〉
2005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최우수 무대미술상
1999 한국뮤지컬 대상 최우수 무대미술상
1997 제1회 무용비평가상 특별상 수상

조명 —김창기 Kim Chang-key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연극 〈페스트〉〈얼굴도둑〉〈엘렉트라〉〈3월의 눈〉〈1984〉〈여행〉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메디아〉〈미스 줄리〉〈아버지〉〈어
머니〉〈햄릿〉〈갈매기〉〈세일즈맨의 죽음〉〈겨울이야기〉〈토
막〉 외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4 서울연극인대상 조명디자인부문
2013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06 제43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의상 —이수원 Lee Soo-won

연극 〈최서림, 아화순레기행전〉〈에어콘 없는 방〉〈봄날〉〈즐거운 복
희〉〈아마데우스〉〈그을린 사랑〉〈미친극〉〈야메의상〉 외

오페라 〈투란도트〉〈봄봄, 동승〉〈라보엠〉

창극·국악극 〈산불〉〈천년도〉

영상 —신성환 Shin Johannes

연극 〈아버지의 집〉〈19 그리고 80〉〈과부들〉〈예술하는 습관〉〈이상
12월12일〉〈33개의 변주곡〉

창극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청〉

오페라 〈투란도트〉〈돈 조반니〉

기타 〈산대화: 만화방창 광화문〉〈고궁뮤지컬: 천상시계〉 외

음악 —김선 Kim Sun

연극 〈백치〉〈얼굴도둑〉〈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실수연발〉〈오
셀로〉〈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방문〉〈시련〉〈아버지와 아들〉
〈마리나 초베타예바의 초상〉〈이영녀〉〈러브 앤 머니〉〈이인실〉
〈바나아저씨〉〈꽃이다〉〈과부들〉 외

음향 —김서영 Kim Seo-young

연극 〈나생문〉〈혈우〉〈가족의 원〉〈진홍빛 소녀〉〈잠수괴물〉〈파국〉
외

뮤지컬 〈정글라이프〉〈달그림자〉〈타이커〉〈도전 19벨〉 외

무용 〈엘 비아헤〉〈신의 춤 인간의 춤〉

분장 —이동민 Lee Dong-min

연극 〈돼지우리〉〈1945〉〈실수연발〉〈아버지와 아들〉〈조씨고아, 복
수의 씨앗〉〈벚꽃동산〉〈함익〉〈면 데서 오는 여자〉〈줄리어스 시
저〉〈맘모스 해동〉〈맨 끝줄 소년〉〈별자리〉〈한때 사랑했던 여자
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과부들〉 외

소품 —김혜지 Kim Hye-ji

연극 〈얼굴도둑〉〈1984〉〈메디아〉〈불역패재〉〈실수연발〉〈로베르
토 주코〉〈아버지〉〈어머니〉〈잔치〉〈달빛 안갯길〉〈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아버지와 아들〉〈과부들〉〈예술하는 습관〉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구텐버그〉〈헤드윅〉 외

창극 〈산불〉

수상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무대디자인부문 수상

무대감독 —민상은 Min Sang-eun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날보려와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시라노〉〈스위니토드〉〈젊음의 행진〉〈지킬
앤하이드〉〈전국노래자랑〉〈콘보이쇼〉〈그리스〉 외

조연출 —박문수 Park Moon-su

연출 〈그게 아닌데〉〈그 옷〉〈하지만 내 꿈인 걸〉〈가난 포르노〉

배우 〈인류 최초의 키스〉〈전설의 달밤〉〈한씨 연대기〉〈라이방〉〈고
래〉〈자유종〉〈The Knock〉〈카운터 포인트〉 외

조연출 —김세홍 Kim Se-hong

조연출 〈에어콘 없는 방〉〈벚꽃동산〉〈다락방〉

각색 〈그냥, 슬기로운 생활〉〈햄릿, 영원히 남을 시〉

드라마투르그 〈내 앞의 신호등은 항상 초록불이었다〉〈낮 가리는 집〉

만드는

사람들

출연

강진휘 안 에겔란드, 시몬 페레스
강해진 트롤, 독일인 아내 외
김수아 마리안느 하이베르그,
미국인 외교관
김정호 아흐메드 쿠리에
김정환 요시 베일린, 핀 그란달
민병욱 요한 요르겐 홀스트

손상규 티에유 로드-라르센
유수미 토릴 그란달,
스웨덴인 객실관리인
이호철 론 푼닥 외
임준식 하산 아스푸르
전미도 모나 울
정승길 요엘 싱어

정원조 아이르 허시펠트
조남웅 토르, 독일인 남편 외
최지훈 유리 사비르
(목소리 특별출연)
정만식 이츠하크 라빈

스태프

작 J. T. 로저스 J. T. Rogers
번역 고영범
연출 이성열

드라마투르기 조만수
무대 이태섭
조명 김창기
의상 이수원
영상 신성환
음악 김선
음향 김서영
분장 이동민
소품 김혜지

무대감독 민상은
조연출 박문수
조연출 김세홍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최솔기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박상훈 이희섭 김종선 이동인
김민정
조명오퍼레이터 김용주

조명팔로우 유영우 이주형
음향오퍼레이터 황대환
영상오퍼레이터 정혜지
의상진행 전요나 반예지
조명팀 정하영 김소현 신동선 최연수 최인수
이현직 윤진선 윤라연 이애림 이상민
곽태준 임효섭
분장팀 이동민 이승주 김상민
무대제작 (주)쇼텍라인
무대 어시스턴트 박은혜
의상 어시스턴트 박인선 임라희 오수봉
소품제작 IN감
소품 어시스턴트 이희순 박현주

탱고안무지도 서진 T.M
영문자막 번역·검토 조용경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연경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민 오지수
마케팅 김태은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이다영 이승이 김효진 소여진

그래픽디자인 일상의 실천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불땀
홍보사진 수파그라운드
광고영상 602 STUDIO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기록 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대표 황경환)
하이라이트 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 인쇄 퍼스트경일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인혜 허수련 이은지 이준원
김다애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백가현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김민정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혜빈 김형태 김민주 임예은 손유희
권령아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해주
홍정선 예한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철순
제작진행 김소현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 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뜨겁고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김성규 감사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김소연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영 프로듀서 | 김소현 이아름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이송이 김효진 마케팅 | 오지수 이정민 홍보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관리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소여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 음창인 이병석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최솔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 임채호 무대기계 | 박지수 무대의상 |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전산 | 최태영 경영기획·인사 | 김시내 예술감독 비서 | 주현우 노무·자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권은지 연수단원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 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새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웅



박경주

〈성〉 〈운명〉 〈호신술〉



홍아른

〈성〉 〈운명〉
〈오렌지 북극곰〉



임준식

〈성〉 〈페스트〉 〈오슬로〉



정세벌

〈성〉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록앤롤 Rock 'N' Roll〉



김수아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이원희

〈3월의 눈〉 〈페스트〉
〈호신술〉

2018~19
국립극단 시즌단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종무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이수미

〈3월의 눈〉 〈운명〉
〈텍사스 고모〉



전원조

〈사물함〉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장지아

〈성〉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양서빈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최지훈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주인영

〈얼굴도둑〉 〈운명〉
〈텍사스 고모〉



김한

〈3월의 눈〉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이호철

〈3월의 눈〉 〈얼굴도둑〉
〈오슬로〉



강해진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박가령

〈성〉 〈운명〉 〈호신술〉



조남용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책임연구원 정주영 연구원 유혜영 리본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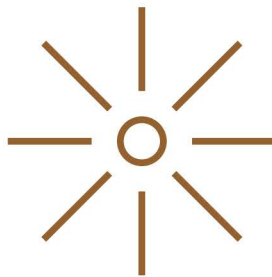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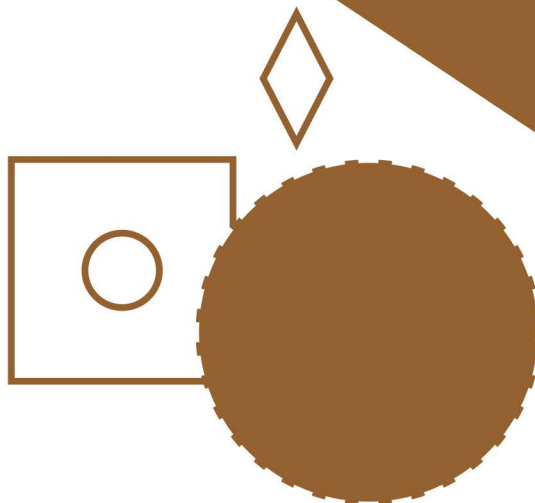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아시아 최초의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꿈꾸다

(재)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작품 개발을 수행할 국립
연구소로 (재)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설립을 목표로 2011년 5월 2일에
출범했다.

본 연구소는 우선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청소년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작품개발 및 현장 순회공연,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사례 및 제작과정
연구 책 발간, 국제심포지엄과 이야기판,
교사 세미나, 젊은 작가·연출가·배우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작은극장
프로젝트〉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 2011년 국립극단
첫번째 청소년극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노란 달 Yellow Moon〉, 〈타조
소년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비행소년 KW4839〉를 무대에 올렸다.

오렌지

ORANGE
POLAR BEAR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무늬문

작: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

2018.10.11 - 21
백성화장민호극장

연출: 피터 원 켈슨

출연
김민주, 라자크 쿠코이
강정임, 타히라 사리프
홍아론, 마이클 코주

주최
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SHINSEGAE
新井 新世界劇場
푸른티켓

국립극단
청소년극



제작



국립극단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한영

HANYONG
THEATRE

협력



BIRMINGHAM CITY
University

KOREA-UK
TYA PROJECT



한국-영국
청소년극 프로젝트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4회
ASAC창작의극공모
대상 선정작

연출 최용훈
무대 이엽지
조명 김성호
의상 강기정
음악 이형주
음향 강수룡
분장 백지영
소품 노주연

출연
박혜진 김용준
이수미 이정은
주인영 이기현
홍승만 김은아
윤안나

2018.
11.02-
11.25

백성희장민호
극장

주최·제작
국립극단
안산문화재단

SHINSEGAE 부천아트센터
부천문화재단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미국에서의 수영은 정말
근사할 것 같았는데...”

윤미현 작

텍사스 고모



국립극단 백양

국립극단 ×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처명	내용	연락처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02-6004-7391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789-2778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세트 메뉴 주문 시, 프리미엄 로스트 원두커피(S) 또는 아이스커피(M) 1잔 제공	070-7017-6404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룸 예약 시 호텔28 에코백 증정, 당일 객실 가능 시 early check-in, late check-out 무료 제공 *단, 호텔28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적용	02-774-2828
	매콤순살닭튀김소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ntck.or.kr | 제휴문의 02-3279-2278

예술新世界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마주 앉아서 같이 저녁 먹는 사이면 평화를 도모할 이유가 없죠.
평화는 내가 다니는 시장을 폭격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폭파시키는 자들하고 도모하는 거예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